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7~9/23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선명상 길라잡이	미래본부	조계종출판사	6	관세음보살 기도법(초발심자를 위한)	하일스님	솔과학
2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필사 명상	법상	조계종출판사	7	신중도의 세계	현주	불광출판사
3	초역 부처의 말 필사집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8	법화경 법문(이것이 법화경이다)	무비스님	담앤북스
4	33관음 컬러링 북	정기란	담앤북스	9	불교 행운상징 컬러링 북	박혜원	담앤북스
5	선정겸수	월암	담앤북스	10	선생님 지도에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	노승대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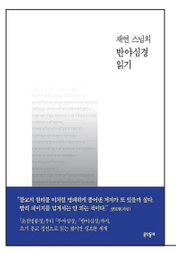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화 :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2	초기불교입문 : 초기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7	중론 : 산스끄리뜨게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개정본)	용수 짓음/청목 주석	오타쿠
3	맛지마니까야(1)중간길이로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8	억울한누명 : 김성철교수의 불교시 모음	김성철 시집	오타쿠
4	깨달음에 이르는 알아차림 명상 수행(명상치료5)	아날요/이필원 외	명상상담연구원	9	낡은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원고 68편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5	수릉엄경	이운허/김월운 개역	동국역경원	10	불멸(2) 실체없는 자존심	이각 지음	지혜의눈

〈반야심경〉에 이르는 두 가지 길

초기 경전으로 푼 연기와 무아
현실 언어로 불교의 본질 살펴

현대물리학 언어로 읽는 '공(空)'
"우주는 〈반야심경〉의 세계관"



재연 스님의 반야심경 읽기
재연 스님 지음
문학동네 / 1만9800원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
사지 하루오 지음 / 주성원 옮김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읽히면서도 가장 난해하다고 평가되는 경전이 〈반야심경〉일 것이다. 불과 260자 남짓한 짧은 문장 속에 '공(空)'의 가르침이 압축돼 있기 때문이다. 그 압축성 때문에 〈반야심경〉은 누군가에게는 신비한 주문처럼,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가르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시중에 출간된 수많은 해설서만큼 〈반야심경〉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다.

〈재연 스님의 반야심경 읽기〉는 초기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반야심경〉을 풀어 낸 책이다. 저자 재연 스님(한국초기불교대학원장)은 인도 푸나대학교에서 산스크리트어 및 프라크리트어 석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선운사 초기불교불학승가대학원장 등을 맡아 빠알리 니까야의 가르침을 전해 왔다.

책은 곧장 〈반야심경〉으로 들어가는 대신 부처님의 깨달음의 순간에서 출발한다. 부처님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초기 경전인 〈초전법륜경〉, 〈보름날 밤 경〉, 〈무아상경〉을 통해 중도와 사성제, 오온 등 불교의 주요 개념을 먼저 설명한 뒤 〈반야심경〉에 대한 고찰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난해하게만 느껴지는 〈반야심경〉이 사실은 인간 고타마 싯다르타의 실존적 고민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경전 해설 방식 역시 엄숙함 대신 친숙함을 택했다. 스님은 '엉성한 스님'으로서 자신이 겪는 일상적인 마음의 부침이나 '된장국을 무척 좋아하는 중년 남성 아무개'의 위태위태한 수행담 등을 소재로 '십이연기'를 설명한다. 십결(十結) 가운데 색탐(色貪)과 무색탐(無色貪)은 솔직히 자신도 잘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중노릇 50년으로도 욕탐과 악의의 해결은 막막하다는 생각에 많이 부끄럽고 서글프다"는 고백은 현실 속에서 불교를 고민하는 수행자로서의 진정성을 드러낸다.

재연 스님은 "〈반야심경〉을 포함한 방대한 반야부 경전은 고타마 붓다의 연기(緣起),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며 "다시 강조하건대 〈반야심경〉의 '심(心)'은 멈춰선 '마음'이 아닌 '뛰는 가슴'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무상(無常), 고(苦), 무아, 연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안도현 시인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반야심경〉이 초기에 담고자 한 의도를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문장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불교의 원리를 이처럼 명쾌하게 풀어 낸 저자가 또 있을까 싶다"며 숙독(熟讀)을 권했다.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은 일본의 천체물리학자 사지 하루오(佐治晴夫)가 안내하는 〈반야심경〉 해설서다. 저자는 마쓰시타 전기 도쿄연구원 수석연구원, 도쿄대학 물성연구소 연구원, 미야기대학 교수, 스즈카단기대학 총장 등을 역임한 이론물리학자로 양자론적 무(無)에서 우주 창조에 관한 '진동' 이론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불교 철학의 입장에서 쓴 〈반야심경〉의 해설서가 아니라 〈반야심경〉에 쓰인 내용을 기점으로 현대 과학이 이해한 우주의 모습을 설명해 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서 일하며 우주를 연구해 온 저자는 별과 행성, 원자와 입자의 움직임을 탐구하다가 불교 사상과의 놀라운 접점을 발견했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의 그물망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26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와 공 사상과 일치한다.

저자는 "내 몸은 매일 변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과학으로 불교적 사유를 풀어 낸다. 별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과정, 세포가 교체되는 생명 현상, 빛의 이중성은 곧 〈반야심경〉의 세계를 설명하는 과학적 언어가 된다.

특히 어려운 철학 개념을 과학적 비유로 쉽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는 물이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존재하듯, '나'라는 존재도 수많은 관계와 조건이 모여 이뤄진 것임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홀로 존재하는 나'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연기의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500곳이 넘는 학교를 찾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우주의 이야기를 들려준 경험, 음악과 예술까지 넘나든 저자의 이력은 책에 따뜻한 울림을 더한다.

앞서 소개한 두 책은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이르는 곳은 같다. 〈재연 스님의 반야심경 읽기〉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통해 삶의 본질을 성찰하게 하고,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은 우주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두 책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새로 나온 책

색칠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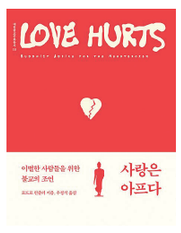
마음고요 만다라 컬러링 100
용정운 지음
불광출판사
1만9000원

명상 카툰 작가인 용정운 씨가 마음공부의 한 방법으로 그리고 채색한 만다라 도안 100가지를 담은 책이다.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일 때는 간단한 도안을, 차분히 몰입하고 싶을 때는 세밀한 도안을 골라 색칠하면 된다. 도구나 방법, 순서 모두 정해진 바 없이 자유롭게 하면 된다.

만다라는 티베트 불교 수행법에서 비롯됐지만 오늘날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심리 치유의 방법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용정운 작가는 "만다라는 바쁘고 혼란한 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자 '명상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이별한 이를 위한 붓다의 조언



사랑은 아프다
로드로 린즐러 지음
우정석 옮김
운주사
1만4800원

삶은 이별의 연속이다. 명상 지도자이자 작가인 저자는 명상을 가르치며 만난 이들에게 들은 이별담과 실연담에 붓다의 가르침으로 답한다.

책 읽는 법과 사랑에 대한 정의, 명상하는 법 등을 소개하고 있지만 '혼자인 것 같다면',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면',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슬퍼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페이지를 펼쳐 읽으면 된다.

저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된다"며 "이 책을 통해 내가 괜찮아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행복은 우리 안에 늘 있다



현존의 행복
루퍼트 스파이라 지음
신성일 · 김윤 옮김
침묵의 향기
1만6800원

"모든 사람이 변함없는 행복을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까닭은 엉뚱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도자 2세대를 대표하는 도예가이자 명상 지도자인 저자가 어떻게 하면 변함없는 행복을 알고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명상 에세이다.

저자는 "우리는 행복을 몸과 마음의 상태로 오해하지만, 참된 행복은 우리의 존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성임을 깨닫고 누려야 한다"고 말한다.

또 무작정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진정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탐구해 보자고 제안한다. 질문에 곧 답이 있기 때문이다.

